2026년 11월 기준 · THE FIRST SEVEN DAYS

강아지 데려온 첫 7일

처음 키우는 사람이 평생 습관을 잡는 일주일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수의 단체 기준 그대로 정리

혼내지 않고 「잘한 순간」으로 가르치는 7일

배변·밥·잠·혼자 있기 · 하루 시간표·건강 기록표 등 부록 9가지

블록뮤즈 서재 엮음

블록뮤즈

차례

이 책을 읽는 법 3

1장 데려오기 전날 — 집을 강아지 눈높이로 6

2장 1일째 — 조용한 첫날, 첫날 밤 11

3장 2일째 — 배변, 실수보다 성공을 많이 16

4장 3일째 — 밥그릇 앞에서 정하는 것들 21

5장 4일째 — 동물병원 첫 방문과 동물등록 26

6장 5일째 —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알려 주기 32

7장 6일째 — 혼자 있는 연습, 씹는 연습 37

8장 7일째 — 칭찬으로 가르치는 첫 신호 43

9장 첫 외출과 우리 동네 규칙 48

10장 평생 습관으로 잇는 30일 실행표 53

부록 1 데려오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58

부록 2 첫 7일 하루 시간표 60

부록 3 건강 기록표 62

부록 4 사회화 기록 50칸 63

부록 5 위험한 음식 한 장 67

부록 6 자주 묻는 질문 69

부록 7 용어 풀이 71

부록 8 첫 30일 성장 일지 73

부록 9 도움 받을 곳 75

덧붙임 첫날 준비물 — 고르는 기준과 아끼는 방법 76

참고 자료 78

이 책을 읽는 법

첫날 밤, 낑낑대는 소리에 안아 줘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오는 날은 설렙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생각보다 빨리 질문으로 바뀝니다. 어디서 재워야 하지? 바닥에 쉬를 하면 혼내야 하나? 사료는 하루 몇 번? 산책은 언제부터? 질문은 많고, 검색창의 답은 서로 다릅니다.

이 책은 그 질문들을 하루에 하나씩 풀어 갑니다. 데려오기 전날 집을 준비하는 일부터, 일곱째 날 처음으로 「앉아」를 가르치는 일까지. 하루 한 장씩 읽고 그날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의 한 문장

강아지는 첫날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혼내서 가르치지 말고, 잘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록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책에 적은 숫자·법 조항·건강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원문,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와 미국수의동물행동학회(AVSAB) 같은 수의 전문 단체의 공식 지침에서 확인했습니다[1][3][6][8]. 숫자 옆 [1], [2] 같은 번호는 책 끝 「참고 자료」의 번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장마다 나오는 「장면」은 가상의 장면입니다. 강아지를 처음 데려온 집에서 흔히 생기는 일을 여러 갈래로 섞어 만든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가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책 속 사진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그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법과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신고처럼 법이 정한 일은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3].

이 책은 수의사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종 일정, 사료 양, 아픈 기색은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상담하세요. 강아지가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숨쉬기 힘들어 보이면 책을 덮고 바로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11].

이 책의 지도

날	장	무엇을 하나
전날	1장	집을 강아지 눈높이로 바꾸기
1일째	2장	조용한 첫날, 첫날 밤
2일째	3장	배변 — 실수보다 성공을 많이
3일째	4장	밥그릇 앞에서 정하는 것들
4일째	5장	동물병원 첫 방문과 동물등록
5일째	6장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알려 주기
6일째	7장	혼자 있는 연습, 씹는 연습
7일째	8장	칭찬으로 가르치는 첫 신호
그다음	9장	첫 외출과 우리 동네 규칙
30일	10장	평생 습관으로 잇는 30일 실행표

이 장의 출처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026. 2.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4753/download.do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3. 2. 3.(조간). https://www.mafra.go.kr/bbs/mafra/68/565282/artclView.do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법률 제22119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제2조·제15조·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 11. 24. 확인)

[6] 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WSAVA) Vaccination Guidelines Group, 「2024 Guidelines for the Vaccination of Dogs and Cats — Executive Summary」, 2024. https://wsava.org/wp-content/uploads/2024/05/2024-Guidelines-for-the-Vaccination-of-Dogs-and-Cats.pdf

[8]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AVSAB), 「Position Statement on Puppy Socialization」, 2008. https://avsab.org/resources/position-statements/ (사본: https://indoorpet.osu.edu/sites/default/files/imce/Puppy_Socialization_Position_download_-_10-4-14.pdf)

[11] ASPCA Animal Poison Control, 「People Foods to Avoid Feeding Your Pets」. https://www.aspca.org/pet-care/animal-poison-control/people-foods-avoid-feeding-your-pets (2026. 11. 24. 확인)

1장

데려오기 전날 — 집을 강아지 눈높이로

강아지를 키우다 포기를 고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돈도, 이사도 아닌 「행동 문제」였습니다. 행동은 첫날부터 집이 만들어 줍니다. 이 장은 데려오기 전날 집을 준비하는 법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 ✓ 첫 7일 동안 날마다 무엇을 할지 알고, 그날 할 일만 차분히 해낸다
- ✓ 배변·밥·잠·혼자 있기를 혼내지 않고 「잘한 순간」으로 가르친다
- ✓ 동물등록·외출 규칙·동물병원 상담까지, 보호자가 챙길 일을 빠짐없이 마친다

「내일 온다는데, 뭘 사 놔야 하지?」

장면 예시

가상의 장면 — 데려오기 전날 밤

그녀는 쇼핑 앱 장바구니에 물건을 스물두 개째 담고 있습니다. 방석, 옷, 간식, 장난감 세트, 자동 급식기. 결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춥니다. 정작 강아지가 어디서 자고, 어디서 쉬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봅니다. 소파 밑으로 늘어진 충전기 선, 낮은 탁자 위의 초콜릿 상자, 열려 있는 욕실 문. 강아지 눈높이에서 본 집은 낮에 보던 집과 전혀 달랐습니다.

준비물을 잔뜩 사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를 미리 그려 보는 일입니다.



강아지 눈높이에서 본 거실 — 울타리를 친 작은 공간에 잠자리와 물그릇, 배변 자리가 나뉘어 있다

근거

포기를 고민한 이유 1위는 「행동 문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은 이제 흔합니다. 2025년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기르는 비율은 29.2%였고, 기르는 반려동물 가운데 개가 80.5%로 가장 많았습니다[1].

그런데 같은 해 조사에서 1년 안에 입양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시간적 여유 부족」(25.3%), 「경제적 부담」(18.2%), 「반려동물 관리 자신 부족」(16.3%)을 꼽았습니다[1]. 키우는 일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미 키우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2022년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였습니다[2].

미국수의동물행동학회(AVSAB)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문제는 보호자와 개의 유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보호소에 개를 포기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적었습니다[8]. 행동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처음 배우는 곳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해결

전날 저녁, 집을 세 구역으로 나누기

1. 잠자리 구역: 사람이 오가는 소리는 들리되 발길이 덜한 곳에 울타리나 이동장(켄넬)을 놓고 방석을 깝니다. 처음 며칠은 이 공간이 강아지의 「내 방」입니다.
2. 배변 구역: 잠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변 패드를 깝니다. 잠자리와 너무 붙어 있으면 둘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3. 놀이 구역: 처음엔 거실 한쪽처럼 좁게 시작합니다. 눈이 닿는 곳에서만 놀게 하고, 집 전체는 습관이 잡힌 뒤에 천천히 넓힙니다.

그다음 바닥에 엎드려 강아지 눈높이로 한 바퀴 돕니다. 씹을 수 있는 전선, 삼킬 수 있는 작은 물건, 사람 음식과 약, 쓰레기통, 열린 욕실 문을 치우거나 막습니다.

특히 사람 음식은 미리 치워 두세요.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동물 독극물 통제 센터는 초콜릿·커피·카페인, 포도와 건포도, 양파·마늘·차이브 같은 파(Allium)속 채소, 마카다미아, 자일리톨이 든 껌·사탕·치약 등을 반려동물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으로 꼽습니다[11]. 식탁 위 간식 접시 하나가 첫날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자세히 봅니다.

준비물보다 「자리」가 먼저입니다. 잠자리·배변 자리·놀이 자리가 정해진 집에서 강아지는 덜 헷갈리고, 덜 헷갈린 강아지는 덜 혼납니다.

바로 쓰는 것

데려오기 전날 체크리스트

- ◯ 잠자리 자리를 정하고 울타리나 이동장, 방석을 놓았다
- ◯ 배변 패드 자리를 잠자리와 떨어뜨려 정했다
- ◯ 바닥의 전선·작은 물건·약·쓰레기통을 치웠다
- ◯ 초콜릿·포도·양파·자일리톨 껌처럼 위험한 음식을 손 닿지 않는 곳에 넣었다
- ◯ 데려오는 곳에서 먹던 사료 이름과 먹는 시간을 물어보았다
- ◯ 가족끼리 부르는 이름과 「안 돼」 대신 쓸 말을 하나로 정했다
- ◯ 가까운 동물병원 두 곳의 진료 시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

이 장의 출처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026. 2.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4753/download.do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3. 2. 3.(조간). https://www.mafra.go.kr/bbs/mafra/68/565282/artclView.do

[8]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AVSAB), 「Position Statement on Puppy Socialization」, 2008. https://avsab.org/resources/position-statements/ (사본: https://indoorpet.osu.edu/sites/default/files/imce/Puppy_Socialization_Position_download_-_10-4-14.pdf)

[11] ASPCA Animal Poison Control, 「People Foods to Avoid Feeding Your Pets」. https://www.aspca.org/pet-care/animal-poison-control/people-foods-avoid-feeding-your-pets (2026. 11. 24. 확인)